



기도

박경옥

우리 중에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말하기도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게다가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는 더욱 미지수입니다. 그런가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어쩐지 그런 신비스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왠지 정상적인 논리적 사고를 못할 것 같고 그들과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덧 겨울학기의 끝에 이르러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하나인 '기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내 속에 온전히 녹아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 인류가 모든 시대에 어는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라는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로마서1:20-23)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성품에 대한 묘사를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분

하나님께서 먼 옛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신이든 믿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다원주의가 거짓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며, 진짜 신은 한 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바른 기도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원주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17-39에 보면 가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얼마나 공허한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의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기도는 감동적이고 멋진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참되 회개를 하고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2)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격적이신 분

성경의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십니다. [해님과 달님]에 나오는 토속신 호랑이처럼 욕심스럽거나 악을 배풀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거나 내가 저지른 불의를 잘 막아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매우 어려운 주제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는 우리 인간을 보고서 약간 추정해볼 뿐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도 적절히 사용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듣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앞뒤 말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뱉어낸 다음 할 말을 다했으니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획 돌아서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보아왔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데 마치 인격이 없는 나무나 돌한테 퍼부어 내듯 무책임한 말과 태도를 내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에 익은 용어나 구절을 흉내내며 가식적이고 내용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를 흰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닮아 인간이 인격을 가지도록 만드시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며 이야기 하고픈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포함한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3) 자비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나라의 토속 신 사상에 많이 영향 받은 사람들은 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의 노여움을 타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십일조를 한다든지 교회 새벽기도 출석을 한다든지 해서, 즉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눈감아 주실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신다면 지금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악인에게도 똑

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구제나 십일조를 한다든지 혹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4)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신뢰하려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하나님을 마치 마술 방망이처럼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긍정적인 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응답을 사용하기 보다는 '00의 영력'에 찬사를 보내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00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쇼핑 목록을 주문하고 물건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5)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알려 주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매사가 분명하고 편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날에도 여전히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욕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을 회개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욥기42:4-6)

2. 기도는 왜 하는가?

1)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기면 살아 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엄마 뱃 속의 아기가 엄마의 심장 박동을 통하여 그 목숨이 유지되고 자라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참 인간이 되려면, 인간 개개인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하나님에게 붙어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주의자나 과학주의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비로운 체험이 꼭 필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2)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

하고 얻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후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제1인격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짐스러운 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3)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이라는 현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지 모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슴아파하며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기도가 그 길입니다. 물질주의자들의 우상인 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학벌도 건강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3.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1)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려는 데에는 방해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꾸 미룬다든지 웬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든지 이러한 감정의 기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여기에 빠진다면 기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2)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써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7-9에 보면 바울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 응답에 감사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통찰력을 지니지 못한 우리는, 아마도 이런 식의 응답을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헨리 워드 비처(Henry Ward Beec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어떤 여자가 인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녀에게 젊은 요리사를 보내신다." 즉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응답들은 별로 환영받을만한 응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3) 사실 성경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그러하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겹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NO"는 "YES"만큼 진실한 응답으로서, 때로는 더 각별한 응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거절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모든 고통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의 고통들을 감수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로부터 고통을 떠나게 하고 더 이상 불행과 고뇌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과 똑같은 일로서, 그것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한다."

4) 기도를 지성과 행위의 대체물로 만들어 버리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데에는 3가지 길이 있는데,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하면서도 한 손에서는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크롬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8:3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쩐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쩐이니까.....” 이에 대해 6,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5)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분별없고 독단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분이 주시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갈망하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WAIT” 이것은 우리가 비록 선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7) 자연주의의 ‘닫힌 체계’의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불가능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린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8) 기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받는 활동으로 보지 않고 경건의 형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투적이고 무미건조한 형식이 되어 버린 기도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9)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계획했었던 어떤 것을 기도를 통해 얻어내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늘 보좌를 흔든다” 고들 말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10)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인간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뿐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 예를 우리는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는 신비스럽고 인간이 알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인간의 도움을 빌리실 때가 있습니다.

11) 기도를 다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돌려야 하는 비상 변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본 후에야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 기도가 가지는 큰 의미들

1) 기도의 전투성

기도하는 것은 적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하 저항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어둠의 나라를 전복시키도록 싸웁니다. 문제는 어둠이 단순히 우리 주위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 고통스런 공격을 가하는 무기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반대합니다. 이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2) 기도의 이타성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때, 타인을 위한 기도는 자동적으로 따라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농축될수록,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중보 기도라고도 불리는 이 기도에 대해 윌리엄 로우(William Law)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차별들의 최고의 중재자이고 참된 친교의 최고의 촉진제이며 모든 무정한 기질들, 모든 분노와 오만한 감정들에 대한 최고의 치유제이자 예방제이다.”

이기적인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지요. 코우(Coe)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자신을 하나님께 참여시키는 사람은 우주를 전에 존재했던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 세상의 무게 중심을 바꿉니다.

3) 내면의 통합

기도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 파편화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믿음과 행위 사이에 내적 분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들이 동의하는 신조들의 묶음으로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과 행위가 나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통합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4) 기도의 연속성

진리는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전승되어야 하고 수십 세기를 통하여 전수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신실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 속에서 기도의 연속성이 끊어진 때가 결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는 약속이 계속되어 왔으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성도들은 기도를 계속하였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의 릴레이에서 우리의 막대기를 넘겨주어야 할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하는 기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5) 기도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닌 핵심적인 능력은 기본적인 창조력의 가능성입니다. 창조력이란 생각과 상상력과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으며 탐험하고 발견하고 손으로 만들고자 하는 호기심을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후에 비정상적인 역사 속에 살고 있으므로 아름답지 못한 계획을 가진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선택하고 대화하는 능력에서 인간의 생각이 갖는 독특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창조성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신선한 방법을 제시하고 신성한 기도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말 뿐 아니라 스케치, 그림, 음악, 춤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다른 사람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손과 잠재성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직접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하의 작품에는 악보 밑에 있는 여백에 “하나님께 영광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써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악보가 교회음악은 아니었지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기도로써 감사와 사랑을 창조주께 드린 경배였습니다.

5. 결론

세계관 공부와 기도는 어쩐지 맞지 않는다고들 생각합니다.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웬지 기도를 덜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는 밤새 혹은 새벽마다 무릎꿇고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전유물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세계관 공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을 배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려는 꿈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통합되기를 원하는 분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스파이로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 기도가 없이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뱀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기 전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드립니다.